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박사, 고고학과 구약성서, 세션 3, 초기 이스라엘

© 2024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박사와 그의 고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션 3, 초기 이스라엘입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c에 대한 이해와 성경과 성경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큰 그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고학 연구.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과 구약성서 또는 고고학과 고대 이스라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전 토론에서 제가 언급한 메르넵타 비석 또는 메르넵타 비석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연대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연대는 기원전 1229년이나 12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 기간의 큰 그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출애굽의 시기, 즉 약간 전이나 약간 후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고고학적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석의 일부는 아주 오래 전인 1896년에 플린더스 페트리 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편심하고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은 고고학자였습니다. 데이트를 시도하고 고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매우 천재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메르넵타 파라오의 승리의 찬가이자 승리의 비석입니다. 그는 다양한 민족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홉 개의 활이라는 명칭 아래에 넣을 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홉 명의 전통적인 이집트의 적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번역된 찬송가의 한 부분에서, 이것이 메르넵타가 말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엮드려 평안하라, 애굽의 전통적 적인 아홉 개의 활 가운데 고개를 드는 자가 없도다 하니라. 하티가 진정되는 동안 리비아가 함락됩니다.

가나안은 약탈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찬송에서 고리 구조를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티를 넓은 지역,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그리고 이 하티와 가나안 독립체 내의 일부 도시 국가와 민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스글론은 끌려가게 됩니다. 게셀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제노암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황폐해졌습니다. 그 씨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입니다.

그리고 쿠루는 이집트 때문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땅이 평화롭게 하나로 뭉쳤습니다. 떠돌던 자들은 상, 하 이집트의 왕에 의해 굴복당했고, 그가 메르넵타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 많은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인 아스글론과 게셀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방식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R이지만 R과 L은 셈어에서 이집트어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어 끝에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집트어로 우리가 결정사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앞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사는 아카드어에서도 사용됩니다. 단어의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 이집트에서는 아스글론과 게셀이 앓은 남자, 앓은 여자

대신에 도시 국가, 확립된 민족임을 나타내는 세 종류의 돌기가 있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는 막대기는 그들이 외국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세 개의 획, 즉 복수의 획은 그것이 복수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과 게셀과 아스글론이 도시에 정착한 민족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정착하지 못한 민족으로 식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출애굽 직후이든 사사 시대이든 성경 본문에 나오는 초기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과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이동하는 사람들, 양 떼와 양과 염소와 소를 치고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적 이스라엘을 식별하는 데 있어 한정사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볍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에 답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음, 이것은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식별하는 최초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또 다른 주요 데이터는 기원전 12세기와 11세기의 정착지 폭발입니다. 이는 다양한 고고학자들이 고고학 시대 사이의 정착지 변화를 대조한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기 청동기 시대(대략 1550년에서 약 1200년까지), 후기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말기까지를 말한다면 이 기간에 사람들이 살았던 정착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00 미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집계에서 Larry Steger의 집계에서는 가나안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 정착지가 88개, 특히 Hill Country에서 3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후기 청동기시대의 종말이다. 이제 철기시대 I, 즉 1200년부터 1000년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사람들은 Iron I과 Iron II 사이의 전환을 10세기 후반, 심지어 9세기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는 10일 이후입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정착지의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힐 컨트리에는 88개에서 678개, 즉 36개에서 319개까지 678개의 정착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세기나 9세기부터 철기시대 II까지 더욱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철기 시대 II에서는 최대 852개, 특히 Hill Country에서는 557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몇 가지 정착지입니다. 이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 초강대국의 잔재이거나 우리가 곧 이야기하게 될 후기 청동기 시대 초강대국의 가신입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로는 재생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정착지의 폭발적인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성장이고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매우 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르넵타 비석과 이 정착지 폭발이라는 두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여기에 고대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세 번째 부분은 이러한 다양한 정착지의 물질 문화에 대한 논의입니다.

전통적으로 고고학자들은 특별한 건축 양식, 즉 안뜰, 두 개의 옆방, 뒷방이 있는 방이 4개인 집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양식이 정착지의 폭발적인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나는 폭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의 대부분은 이전에 후기 청동기 시대 사이트가 없었던 사이트에 사이트의 확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양한 건축적, 물질적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4개의 방이 있는 집, 고리가 있는 가장자리 저장소 항아리. 이 항아리는 곡물과 기름을 담는 큰 저장 그릇으로, 가장자리와 목이 뚜렷이 식별될 수 있습니다.

테라스 농업은 이 시기에 혁신적이거나 적어도 확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큰 동굴인 수조는 지형의 낮은 지점에서 석회암을 파서 물을 모은 다음 물을 모으기

전에 회반죽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뼈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제가 관심을 갖는 특별한 식습관 패턴이 있습니다.

나의 동물 뼈 멘토인 브라이언 헤세(Brian Hesse)를 시작으로 고고학자들은 동물 프로필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동물 뼈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관련된 해안 평야 지역과 산간 지방 지역에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블레셋 중심부의 해안 평야에 있는 돼지 뼈. 이제 그는 이것을 민족적 명칭에 적용할 때 주의를 권고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돼지 뼈가 없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돼지 뼈가 있는 모든 곳은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이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돼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복잡해지고 돼지 뼈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많은 기능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이 4개인 주택은 전통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고리가 있는 방이 있는 상점 항아리와 테라스는 연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기 시대와 관련된 많은 것들은 사실 훨씬 이후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매우 어려운 수조의 경우,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이스라엘과 식생활 패턴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급했듯이 그것은 복잡하고 부분적이며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논의해야 할 큰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큰 그림, 즉 후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의 전환에 대한 일종의 한 단계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1시대. 많은 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1200년, 기원전 1200년경에 일어난 대규모 붕괴에 주목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초강대국이 멈췄고 일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진원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초강대국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몇 가지 다른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쪽에 바빌론, 다른 하나는 북쪽에 아시리아, 그리고 그들 앞에는 미탄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아나톨리아에 히타이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초강대국은 소수이면서도 거대했으며, 성서에 나오는 오론텐스 강 북쪽 지역에서 벌어진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인과 이집트인 사이의 유명한 대결 사이에서 이 땅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타이트인과 이집트인 사이에 밀고 당기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집트가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전초기지와 이집트 전초기지가 있었고 이것들은 고고학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물질문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 가나안 문화와 혼합된 많은 하이브리드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보고하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일강 하류 또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아마르나(Amarna)의 기록 보관소를 통해 이 시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른바 이단 왕 아케나텐과 그의 아버지인 아멘호테프 3세가 레반트에 있는 그들의 가신들에게 보낸 편지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혹적인 편지입니다.

처음에는 꽤 많은 흥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와서 도시를 파괴할 땅 없는 약탈자인 하비루나 아피루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조슈아나 그와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 가신들 중 일부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성경 자료 간의 연관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집트가 이 땅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탈출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도시 국가의 여러 통치자들이 이집트 왕에게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가신입니다"라고 항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조차도 이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통제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12세기 말에 이르러 그 통제는 다소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에 이집트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음, 우선 증거입니다.

남부 레반트 지역뿐 아니라 멀리 에게해까지 파괴층을 지닌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위대한 미케네 문명이 붕괴했습니다. 이때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히타이트의 수도인 하투샤가 파괴되었습니다. 키프로스, 일부 파괴, 일부 연속성.

그리고 이집트와 레반트. 그래서 우리는 문학적 설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Medinet Habu에 있는 Ramses III의 영안실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도상학적 및 금문적 설명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묶인 바다 민족 그룹을 볼 수 있는데, 일부는 펠레세트(Peleset)라고 알려진 특정 바다 민족으로 식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매우 으스스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는 매우 으스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Ugarit에서 온 편지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오고 있는 영화의 장면들 중 하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이 오고 있고, 펜이 페이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누가 오나요? 글썄, 우리는 Ramses III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 밖의 모든 고대 근동 왕들처럼 이집트 왕들도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하더라도 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양측을 모두 갖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결코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버전에서 그는 그가 어떻게 이 서부의 약탈자들, 이 그룹, 소위 바다 민족들의 연합을 파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체케르(Chekher), 셰켈리쉬(Shekelish), 이 모든 것은 서양에서 온 다양한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나톨리아에서 지중해 동부 해안으로 왔던 일부 사람들이 람세스 3세에게 저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상 전투에 대한 훌륭한 도상학적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전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국경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사람들을 국경에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적들을 국경 바로 근처에 정착시키려는 경우에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집트 보고입니다. 그래서 바다민족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지만, 이집트는 간신히,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람세스 3세는 이집트가 레반트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하기 전인 이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파라오입니다.

그러나 이들 바다 민족 중 하나는 이집트 비문에서 펠레세트(Peleset), PLST, 펠레세트(Peleset)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음이 없지만 모음을 몇 개 넣을 수 있는데, 확실히 블레셋 사람들과 많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바다 민족 중 하나의 하위 집합이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1세대는 아마도 파도 속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블레셋 문화와 셈족 문화의 통합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초기 이해에서 블레셋 정착촌은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산지 문화와 대조되는 특정한 물질 문화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난로 구조, 돼지 뼈의 존재, 그리고 에게 해의 도자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특별한 스타일의 도자기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사실은 문자와 인공물, 심지어 이미지까지 결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멸망할 바로 이 시점에 남쪽 해안 평야에 위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안 평야의 블레셋 사람들과 산간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성경의 초기 이야기와 아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화는 우리가 성경적 상상에서 보는 것과는 약간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편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세련된 것으로 상상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상상합니다. 좀 심술궂은 사람이예요.

물질적 유물에 대한 해석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국제로가 통과하는 평지의 국제적인 거주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국한된 산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문학적 설명 중 일부입니다.

우가릿 편지는 배를 보고 어떤 도움이 올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냉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런 다음 이 편지는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격변의 원인이 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극심한 건조, 건조로 인해 일련의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고, 이는 정치적 불안의 물결을 촉발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에게해와 아나톨리아에서 지중해 동부 해안의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는 해양 민족의 이동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보는 여파는 일부 위대한 문명, 즉 아나톨리아의 백악기 문명과 에게해의 미케네 문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문명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해상 무역과 수입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부 레반트 내에서 탈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일반화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키프로스의 특정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반트 남부의 유적지를 발굴할 때 우리는 후기 청동기 시대 층 사이의 차이를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답게 칠해진 제품부터 철 1의 보다 실용적인 코스웨어까지 있습니다. 구조 중 일부는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이고 확실히 후기 청동기 시대보다 덜 기념비적입니다.

우리는 저장 구덩이로 표시된 정착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곳에 살았는지, 정착하고 있는 유목민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저장 구덩이가 더 영구적인 주거지와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은 왜 우리가 이것을 제공하고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까? 글쎄, 우리는 이미 Merneptah Stele이 있다고 언급했고, 정착지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제 우리는 한발 물러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현재 주요 제국이 붕괴되거나 약화되는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작은 왕국 중 하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큰 그림, 즉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조각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큰 그림인 큰 시간 틀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이 시대, 이 공간의 이스라엘은 후기 청동기 시대 붕괴의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르는 신생 왕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한 알파벳의 사용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기주의는 구약 연구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작되었고 알파벳이 아주 일찍 발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증거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700년, 심지어 기원전 1800년과 같은 것, 이집트 상형 문자 및 아카드 기호에서 작동하는 대신 상형 문자에서 각색된 것,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결정사로 기능하는 기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리로 기능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단어로 기능하게 하거나 음절로 기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호가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알파벳의 장점은 소리에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Ugaritic에서는 20개에서 최대 30개까지 제한된 기호 세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소리를 나타내고 훨씬 더 단순하게 언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벳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주 일찍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까지 인기를 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원전 7세기에

그것이 더 널리 퍼졌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학자들은 글쓰기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지역 왕국에 적응되고 있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서사 문화의 바로 그 사실에서도 지금은 초강대국 이외의 누군가가 서기를 고용할 여유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기관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그들은 어떤 언어, 어떤 언어 세계에 적응했나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작은 진원지에서 글쓰기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후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 사이의 전환기에서 우리 중 일부는 현재 성경의 후기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이러한 성경 본문의 기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존하고 있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조상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역사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루츠(Immanuel Lutz)가 1851년에 묘사한 아주 유명한 그림의 이미지를 올리기 전에, 워싱턴의 델라웨어강 횡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76.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상당히 영웅적인 묘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묘사에 대한 역사적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다.

우선, 어서, 조지, 당신은 빙산을 통과하는 배의 횡벽 위에 그렇게 서 있을 건가요? 그다지 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은, 우리 뒤에는 말과 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누를 타본 적이 있다면 말은 물론이고 예의바르지 않은 개도 카누에 싣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들고 있는 성조기가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조지 바로 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국기를 들고 있지만 Betsy Ross는 아직 바느질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흥미 롭군요. 그리고 배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테네시 개척자, 스코틀랜드 이민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위,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공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실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횡단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역사가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가? 네,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단순한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는 그가 고국에서 상상했던 것과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는지에 대한 19세기 중반의 관점을 나타냅니다. 희망의 별이 있습니다. 인종적 배경이 무엇이든, 출신 국가가 무엇이든, 우리가 갈 수 있는 언어적 배경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그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특정 사건을 넘어서는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성경의 많은 이야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인물, 실제 장소, 실시간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형태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속물 근성, 또는 심지어 오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이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이 과거의 사건, 사람, 장소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문화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야기를 전하는 세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창세기의 처음 11장은 훨씬 나중에, 아마도 왕정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대 근동의 세계에 깊이 얽매이고 몰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많은 이야기에서 고고학적 증거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발굴된 고대 텍스트를 보고 여기에 전달되는 세계가 있고 특정 문학적 스타일, 장르로 전달되는 세계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비교되고 대조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이야기 창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4장,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창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74편의 다른 부분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큰 홍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류의 확산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이 때로는 동일한 순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우리는 특정 이야기의 다양한 강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 대개 과학이나 역사에 관한 질문의 둥근 구멍에 이 사각형 말뚝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사소통하는 것의 목표가 훨씬 더 큼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종류의 질문을 목표로 삼을 때, 성경이 전달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원, 창조, 진화 등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한 특정 집단의 모든 논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대 맥락에서 전달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때, 놀랍도록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때 하나님의 형상은 고대인들이 매우 익숙했을 것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우상, 형상, 성상으로서 왕과 통치자들 역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형상과 통치자인 왕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에는 인종이나 성별 계층과 같은 사회적 구조에 의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의도된 계층 구조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 남자와 여자가 이 개념에서 제거된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 즉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고고학 정보를 통해 회수된 고대 문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고대 개념에 익숙해지면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각각에 대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조상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레베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야곱으로 나아가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창조하거나 그러한 동거를 통해 다음의 맥락을 제공하는 다른 아내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지파 구조는 이른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순서와 포함이 있으며, 여기에서 직접 논의할 수 없는 반 지파와 레위인에 대한 논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에 대해 지적된 많은 고고학적 유사점, 문화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경 연구의 초기 기간에 많은 흥분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특정 역사적 시대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등장하여 대리 입양과 같은 문화적 유사점이 여러 기간과 역사적 기간에 걸쳐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올바르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낱씨를 기준으로 특정 시간대에 배치하는 데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의 고대 맥락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데는 가치가 있습니다.

텐트에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더 큰 역사적 맥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있는데, 이는 제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구속의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 자체에서 작가, 서기관이 고대 이집트 문화에 매우 익숙하다는 많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집트 내 역사적 시대의 맥락과 친숙함을 보여주는 이집트의 풍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떨어질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대출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특정 방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제안하게 된 다른 부분보다 한 부분에 더 잘 맞는 이야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론은 이집트에서 나온 더 작은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민족들이 고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증언 자체도 애굽에서 올라온

혼합된 무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과 재판관 시대에 따른 이야기의 설명에서 그 그림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인 맥락에서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매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대량 학살을 명하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 나는 전쟁이나 여성 학대 또는 대우와 관련된 구약성서의 폭력적인 본문인 공포의 본문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를 학생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괴로움을 겪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성품과 크게 대조되는 끔찍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진정한 본질을 건너뛰고 역사와의 어떤 연관성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장르에 대한 아이디어, 즉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학자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매우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일종의 과장된 방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이 본문에서 자신이 잘못 묘사되도록 허용했다고 제안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어떤 종류의 결론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전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도덕적 긴장의 일부를 놓치는 대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기의 관점이 좀 더 점진적이고 심지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부분에서도 좀 더 점진적인 과정으로 다소 다르거나 유사한 관점을 묘사합니다.

일련의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의 본질에 얽여 있는 곳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전 세대의 학자들은 일련의 파괴 지층을 기록하고, 이를 특정 출애굽 날짜와 연관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대이동이 이른 날짜인지 늦은 날짜인지, 1400년대 중반의 이른 날짜인지, 1200년대 또는 1100년대의 늦은 날짜인지를 확인하는 우리들 사이에는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대탈출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여호수아의 특별한 묘사와 함께 다양한 파괴 층을 나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지리적으로 퍼져 있는 심사위원의 그림을 따라가면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논의했던 더 큰 그림에 함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텍스트의 주요 목표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허공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실 세계에 뿌리를 둔 이야기이고, 그 현실 세계가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큰 그림을 되돌아보면 바로 이 붕괴, 정착지 폭발, 물질 문화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그리고 후기의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붕괴와 그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는 그 맥락 내의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는 이야기에서 묘사한 대로 이스라엘이 시간에 매우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큰 그림으로 함께 모이는 많은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왕국으로 전환하기 전에 초기 이스라엘에 대한 논의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박사와 그의 고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션 3, 초기 이스라엘입니다.